

# 무량수전 천년고찰을 담다 영주 부석사

## 천년고찰, 영주 부석사에 가볼까

경북산업보건센터 건강진단팀은 영주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 출장검진을 위해 해마다 출장을 간다. 다른 센터들도 그렇겠지만 타지역 출장 검진은 대부분 검진시작 시간이 이른 아침부터이며 검진종료 시간도 늦은 오후다. 일이 끝나면 퇴근해서 집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과 남은 시간을 함께 하니 때론 업무의 연장선 같기도 하다.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엇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숙소에 가만히 있자니 답답한 마음에 머리를 식히거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뭘 할까 하다가 지금은 근무하지 않지만 7년 전 같이 일했던 원장님께서 영주 부석사를 직원들 다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싶다며 다 같이 다녀온 기억이 스쳐지나갔다.



김아름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그 당시 3월초 영주는 경상북도에 속하지만 강원도 영주라는 소리를 할 정도로 추운 날씨였다. 부석사에 갔으나 매서운 추위로 여유롭게 다니지 못하고 추위에 벌벌 떨다 내려온 기억이 전부였다. 그때 제대로 보지 못해 아쉬움이 남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직원 몇 명과 함께 부석사를 방문하게 되었다.

부석사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 한건 유네스코 세계유산 부석사 글자가 새겨진 큰 비석이었다. 봉황산에 위치한 부석사는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승려 의상이

창건한 사찰이며 2018년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였고 5점의 국보 3점의 보물이 있는 곳이다.

비석을 지나 매표소로 가는 길은 나무도 하늘도 너무 아름다웠다. 우리가 갔을 땐 평일이고 늦은 오후라 그런지 사람이 거의 없었다.

길 주변엔 상품 진열대가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열리지 않는 듯했다. 매표소를 지나 첫 입구 길은 울퉁불퉁 돌이 섞인 흙길이었었는데, 예전과 달리 지금은 예쁜 길로 정비되어 있었다. 입구 주변은 7월 말까지 공사하는 곳도 있어서 아쉬웠다.

###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아름다운 경치

정비된 길 양 옆으로는 푸릇푸릇한 은행나무가 빼곡히 자리 잡고 있어 입구에서부터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다. 은행나무를 보니 가을에는 얼마나 더 예쁠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찰이 그렇듯 부석사 역시 제법 높은 언덕에 자리하고 있었다. 동료들은 저만치 앞서 가는데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 나는 돌계단에 헉헉거리며 흐르는 땀을 흠치면서 올라갔다. 부석사의 계단은 불교에서 큰 의미가 있는 108이란 숫자에 맞춰서 만들어졌으나 재정비하면서 더 많아졌다고 한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니 목조건축기술의 정점이라고 평가받는 무량수전이 눈앞에 보였다. 무량수전을



가까이 보기 전에 뒤를 돌아보자 탁 트인 전망이 펼쳐졌다. 소백산맥의 능선과 푸르른 하늘 나무 자연의 환상적인 조화에 감탄사가 나왔다. 코로나로 우울했던 마음도 업무 스트레스도 모두 날려버리는 힐링의 순간이었다. 다른 직원들도 나처럼 감탄하며 풍경을 사진에 담으려고 분주했다.

무량수전은 국보 제18호로 배흘림기둥이 특징이다. 멀리서는 일자기둥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기둥 한가운데가 볼록하게 두꺼워 강풍에 더 견고한 설계 방식이라고 한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어쩔 이렇게 지혜로웠을까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

전보다 느긋한 마음으로 부석사를 한 바퀴 돌아보게 되었고 내려가는 길 또한 마음이 편안해지는 풍경들로 가득했다. 우리가 갔을 땐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전이라 그런지 연등이 꽤 달려있었고, 군데군데 피어있는 꽃들과 줄지어 늘어선 장독대들이 어우러져 조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내려오던 도중 작은 돌담에 직원들 모두 소원을 빌어보았다. 다음번엔 가족들과 함께 꼭 한번 다시 와야지 생각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몸과 마음의 힐링이 필요하다면 영주 부석사 여행을 꼭 추천한다. ☺